

+ 안태근 · EBS 프로듀서

한국영화 감독들의 단상



1. 박노식 배우 겸 감독

1970년대는 대본의 사전검열이 있었던 시기로 대본은 갱지에 타자로 인쇄된 형태인데 속지로 줄거리와 합작관련문서가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다. 그야말로 대본에는 스텝 소개에 이어 시나리오만 실려 있는데 다른 시나리오들도 마찬가지로 형태인 것이 아마도 당시의 규정이었던 것 같다. 시나리오 대본에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 영화 제작자 협회의 발송도장이 같이 찍혀 있다. 이것은 협회에 등록된 제작사들이 협회를 통하여 발송했다는 것이다.

대본에는 초심필에서 삼심필까지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초심에서 통과되는 일도 있지만 삼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예 룰'의 검열필 도장이 찍혀야 촬영할 수 있는 것이다. 신봉승 각본, 박노식 감독의 <작크>는 심의필 도장이 두 개씩이나 책의 페이지 옆 면에 찍혀 있지만, 이두형 각본, 김묵 감독의 <1 대 1>의 경우는 초심필 난에 전면개작이 찍혀 있고 재심대본 도장이 찍혀 있다. 재심대본은 타자를 새로 쳐 속지 갈아끼기를 하였다.

나운규의 <아리랑>이 일제강점기를 풍미했듯이 왜 이런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알 수 있다. 검열하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영화인들도 참 어렵게 영화 만들던 시절의 일면들이다.



박노식 배우 겸 감독

2. 신상옥 감독

신 감독은 함북 청진에서 1926년 10월 18일 태어나셔서 2006년 4월 11일 타계하시었다. 북한에 있을 때 얻은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간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 1개월 만에 재수술 후 타계한 것이다. 신 감독이 남긴 발자취는 너무도 크고 그가 남긴 주옥같은 영화들은 그대로 한국영화사의 대표작으로 남아있다. 나는 신 감독의 추모특집 다큐를 만들었다.

다큐의 내용은 방대하여 2시간이 부족하였으나 편성 상의 문제로 방영시간은 90분으로 조정되었다. 90분은 영화 한편의 시간으로 다큐멘터리 한 편 시간으로는 당연히 긴 시간이었다. 왜 그렇게 길게 만들었냐고 묻는 미망인 최은희 배우의 말도 들었다. 나로서 존경의 마음이었다.

부천영화제에서 본 신 감독의 마지막 영화인 2004년 작 <겨울이야기>는 거장의 마지막 선물이라 할 명편이었다. 영화 보는 눈높이가 나와 다른 평론가들은 만들지 말았어야 할 영화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거장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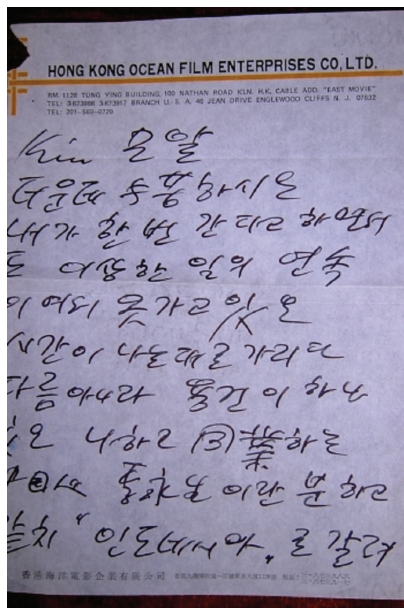
탈북후 미국에서 최은희, 바비김, 신상옥

들어 낸 영화 한 편. 그 속에는 감독의 고뇌와 열정의 땀이 어려 나를 눈물짓게 했다. 80을 바라보는 거장에게 만들 영화, 만들지 말아야 할 영화가 따로 있을까?

신 감독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많은 명 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 중 <겨울이야기>는 극장상영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만들어낸 역작이다. 이 시대 땅에 떨어진 효심을 그려낸 이 영화는 당연히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 영화는 SBS에서 신 감독 추모특집영화로 TV 방영이 먼저 되었고 후에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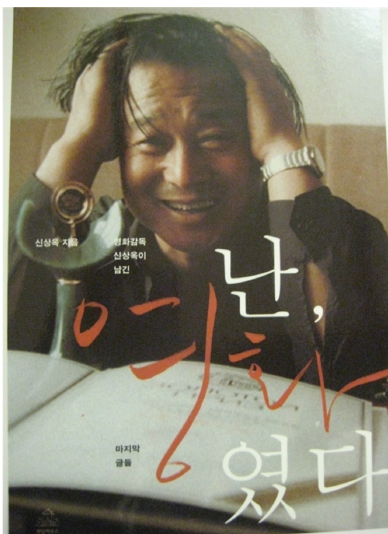
추모특집 다큐에 방송된 내용 이외에도 신 감독의 자료는 계속 수집되었다. 장정국 배우는 당시 신필름의 자료를 내가 아는 한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미국에 계신 바비김은 신 감독과의 일화를 말하며 그가 보낸 서신을 보여주셨다. 사적인 내용이라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고 그 중 한 장을 공개한다.

만화책을 좋아해 미국에 오셨을 때도 일본 만화책을 즐겨 읽으셨다는 신 감독이다. 먼 미국 땅에서 만든<닌자카드>가 흥행에 성공해도 결국 자신이 만들 영화는 한국어로 된 영화라며 귀국하셨던 신 감독이다.



신상옥 감독의 편지

2008년, 신상옥 감독 타계 2주기 행사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장호 감독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병어리 삼룡>의 시사회가 있었다. 2006년에 타계하셨는데 어느새 2주기이다. 신 감독은 하고픈 일을 다 하고 가신 분이기에 별 아쉬움이야 없으실 수 있다. 그간 님의 저서 <난 영화였다>와 미망인 최은희 씨의 <최은희의 고백>도 출간되었다. 2주기를 맞아 일요일 밤에 방송되고 있는 <한국영화특선>에서 4월 한 달 동안 신상옥 감독의 연출자들이 방송되었고 <시네마 천국>에서도 신 감독 2주기 특집을 방송했다.



3. 수원의 영화감독 3인방

수원이 배출한 영화감독들 이야기이다. 내가 중앙대 영화전공학생 때이다. 제대하고 복교를 하니 새내기들이 입학해 있었다. 풋풋한 후배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학생이 민병관이었다. 부리부리한 두 눈이 일을 낼 후배 느낌이다. 태권도를 해서인지 더 믿음직스러웠다. 집은 수원이라고 했고 나와 영화 이야기 꽤나 했다. 아, 그때 우리는 UCLA 영화과 출신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처럼 금방 될 것 같았다. <대부>도 만들고 <전쟁목시록>도 만들 것 같았다.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흑석동 캠퍼스를 세트장 삼아 '레디고'를 외쳤다.

병관은 믿음직스러운 후배였다. 수업도 빼먹고 현장에서 나를 도왔다. 그와 같은 학번의 장현수가 있다. 지성적인 외모에 별로 말은 없지만 내겐 살갑게 굴었다. 이 친구 역시 한 건할 친구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졸업하고 영화아카데미를 다니더니 <걸어서 하늘까지>로 데뷔하고 <남자의 향기>, <본 투 킬> 등의 영화로 충무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 되었다. <라이방>을 마지막으로 신작을 구상 중인데 공백기가 조금 길다. 병관이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좀 투박하게 생긴 제 친구를 데려왔다. 바로 곽재용이다. 경희대 물리학과를 다닌다는데 영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소룡 이야기를 꺼낸다. 무술도 제법 한 듯 액션도 할 줄 알았다.

어디에선가 있었던 활극이야기도 펼쳐놓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시켜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아버지를 만나긴 했는데 설득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그 아버지의 생각은 괜히 영화 한다고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텐데 꺾재용은 기어코 영화감독을 해내고야 말았다. 청소년영화제에서 내가 이정국 감독과 함께 특별상을 받았을 때 그는 우수상을 받았다. 물론 나나 이정국 감독이나 이미 이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었다. 꺾 감독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영화로 이름을 알리더니 <가을여행>으로 유명감독이 되었다. 당시 흥행감독이던 배창호 감독의 기세를 누를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러더니 슬럼프가 있었고 <엽기적인 그녀>로 아시아권 감독이 되었다.

이 셋은 내가 알기로 수원 삼인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출중했던 민병관 감독은 아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시나리오도 잘 쓰고 충무로에서 조감독 인기 1순위에 감독데뷔 1순위로 꼽혔던 사람좋은 민병관, 하느님은 좋은 사람부터 데려간다고 했나? 젊디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4. 정창화 감독의 잃어버린 영화 <바다와 정열>



정창화 감독

정창화 감독과 신상옥 감독과의 만남에 관련된 사실이다. 최인규 감독 문하에 조감독으로 홍성기 감독과 정창화 감독이 이미 있었고 배우 모집공고를 보고 미술전공자 신상옥이 오디션을 보러 왔다고 한다. 최인규 감독은 청년 신상옥에게 미술부로 일하라 했고 신상옥은 정창화 감독의 설득으로 미술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상옥 감독이 나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정반대이다. 정창화 감독이 배우공모에 왔다는 것인데 사실을 뒤바꿔 말씀하신 것이다. 감독으로서 배우지망생이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바다의 정열>이란 영화는 한국전쟁 중에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누군가가 가져다 개봉하였다. 아니면 개봉하려고 준비한 건지 포스터가 남아 있어 그 사실들을 전해 주고 있다.

5. 정진우와 임권택의 감독 데뷔

두 분 감독은 정창화 감독의 조감독으로 같이 일했다. 임권택 감독은 <장희빈>을 찍다가 데뷔했고 정진우 감독은 계속 조감독을 하며 <대지의 지배자>와 <칠공주> 등 두 편의 영화에서 더 조연출을 한다. 그리고 후에는

김시현 감독이 조감독으로 일한다. 두 분은 조감독으로 일하다가 한흥영화사의 최관두 사장에게 잘 보여 같이 감독 데뷔를 하게 되었다.

두 편의 영화를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서로가 감독 데뷔를 하게 되면 조감독을 해주기로 약정 하였던 바인데 정 감독의 아는 분이 서울역 앞 역마차 다방의 레지와의 사연으로 자살하였다. 이를 알리려 역마차 다방으로 가던 중 서울역 앞에서 무단행단으로 임시로 친 줄 안에 갇혔다.

이때가 5.16 직후로 사방에서 군기 잡기가 시작될 때의 풍경이다. 정 감독은 허락 없이 줄 밖으로 나가 역마차 다방으로 향했는데 형사가 다방까지 쫓아와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웠고 남대문 서로 끌려가 깡패로 몰려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정진우 감독



임권택 감독

잘 있거라》를 완성한다. 정진우 감독은 다음 해인 1963년 김지미, 최무룡 주연의 《외아들》로 데뷔한다. 만 스물다섯의 이른 나이였다.

이때 한 방에 30여 명씩 수용되어 있었다. 정 감독은 석 달 20일 만에 필동의 수도경비사령부의 고등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로 풀려났다. 출소 후 와보니 임권택 감독이 쓴 시나리오 《싸우는 사자들》은 이미 김목 감독이 김석훈을 주인공으로 찍고 있었다. 정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을 놓친 셈이다. 그러나 정진우 감독은 임권택 감독과의 약속대로 그의 데뷔작 《두만강아



6. 원작만화 감독들

만화가들의 감독 데뷔가 한때 있었다. 그것은 만화를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며 만화가가 직접 감독 데뷔를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영화 제작사로서는 조감독만 잘 붙여주면 소설가나 만화기도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또 그 지명도로 조금 더 관객동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된 것이다. 성인극화는 70년대 중반에 붐을 이루었다. 스포츠신문에 고우영의 <수호지>, 강철수의 <사랑의 낙서> 등 성인극화가 실려 인기를 끌었는데 주간만화지가 창간되고 만화가가 영화감독 데뷔를 하는 등 성인만화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원작만화인 <가루지기>와 <발바리의 추억>으로 영화감독 데뷔를 한다. 뒤이어 방학기의 성인만화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김세중 선생의 만화처럼 중량감 있는 동양화풍의 만화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스포츠서울에 연재된 <바리데기>는 원작이 따로 있으나 싶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진 만화였다. 무녀가 된 꽃점이의 한 맺힌 일생을 다룬 서사극인데 보는 순간 영화화를 생각했다. 나는 각색부터 시작했고 방 화백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판권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그는 제작사만 찾아오라 하며 웃음으로 거절하였다. 성인감독이 제작사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당시 인기원작로는 시나리오 각본료의 서너 배는 호가하던 시절이었다. TV문학관의 원작료만이 극본료와 엇비슷했다.

그러다 한 해가 지나고 임권택 감독이 샘터영화사에서 <바리데기>를 연출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임권택 감독이 만든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마음의 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샘터영화사는 문을 닫았고 영화화는 불발되었다. 방 화백의 만화들은 모두가 영화소재였는데 최근 TV드라마로 나간 <다모>도 <다모 남순이>라는 그의 만화원작이다. 그의 작품 중에 영화화된 것으로는 <들병이>, <바람의 파이티>가 있다. 성인만화는 아니지만 영화화된 것으로 1959년 만들어진 조정호 감독의 <고바우>도 김성환 화백의 원작만화에서 이미지를 따왔다. 최근에는 이현세의 작품이 많은데 이장호 감독의 <공포의 외인구단>을 비롯하여 장영일 감독의 <지옥의 링>, 류재우 감독의 <며느리 밥풀꽃에 관한 보고서> 등이 있다. 지영호 감독 최민수 주연의 <신의 아들>도 박봉성의 인기 있었던 만화원작이다.

80년대는 만화원작 영화의 붐이었다. 모두가 인기원작 만화를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감독들은 누구랄 거 없이 대부분이 만화광으로 알려졌다. 김재형 PD는 <용의 눈물> 연출로 바쁠 때에도 만화가계를 찾는다고 얘기했다. 그것은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함일 텐데 창작활동을 하면서 겪는 목마름을 풀기 위함일 수도 있다.

만화 하면 이웃 일본이 생각난다. 많은 복제만화가 시중에 풀려있는데 계속 쏟아져 나온다. <드래곤볼>, <북두신권>, <씨티헌터>, <닥터슬럼프>를 거쳐 <슬램덩크>, <사무라이디퍼 교우>, <베가본드>, <H2>, <몬스터>, <테스노트>, <20세기 소년>, <바람의 검심> 등이 쏟아져 나오며 만화시장은 커졌고 거리에서 나누는 무가지에도 끊임없이 신종만화가 연재되고 있다.

만화와 영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컷과 샷이 구별될 뿐 같은 영상매체이며 기승전결을 갖는 이야기 구조도 같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변신을 하는 이종 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동종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영화가 만화화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만큼 만화는 상상력에서 앞서 가는 장르이며 아직 만화원작은 기대해 볼 만한 영화소재이다.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영화감독 데뷔를 하는 젊은 신예들이 많다. 그들에 의해 한국의 영화사와 흥행사가 다시 쓰일 것이다.